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 체계 수출**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체계 해외에 최초 적용 -
-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구축한 사업 중 최대 규모(약 134억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즈베키스탄에 134억 규모로 한국형 특허·상표·디자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사업명: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체계 개선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해외에 수출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 기간·예산: '26년 ~ '29년, 973만불(약 134억)

**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이 특허청장을 겸직

이번 체계 구축은 지식재산처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해외 정보화 상담의 후속 연계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행정 체계가 해외 국가에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은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분야에서 ▲분류 ▲검색 ▲대민용 검색 ▲통계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심사 품질 제고, 민원 처리 속도 향상, 업무 효율성 강화 등 전반적인 행정 혁신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는 체계 안정화 및 운영지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이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모형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행정 체계를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화 경험과 인공 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해외 국가에 수출한 최대 규모, 최초의 사례로, 지식재산행정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5460)
		담당자	사무관	박보미 (042-481-5112)

□ 사업개요

- 개도국 대상 정보화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

* 정보화 컨설팅 : 지식재산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의 해외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

** 시스템 구축 지원 : ODA 자금 또는 대상국 예산으로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보급을 추진

【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성과 】

- KOICA 무상원조 자금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

국가	기간	금액
몽골	'10.06~'11.12	335만불
아제르바이젠	'11.09~'13.08	420만불
ARIPO	'13.10~'15.08	580만불
이집트	'19.10~'23.08	290만불
튀니지	'23.05~'27.02	373만불

- 대상국 자체예산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 UAE('16.2~'19.2, 450만불)
- IDB 기금예산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 파라과이('19.6~'21.9, 52.5만불)

□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명칭)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 (기간 · 예산) '25년 12월 ~ '29년 12월 / 973만불^{약 134억}(KOICA 예산)
- (사업내용) 지식재산권 데이터 정비 및 개선 컨설팅, 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정책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 초청 연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지원 등
- (향후계획) 우즈베키스탄 시스템 개선 사업 착수 회의('26.2), 고위급 및 실무자 대상 초청 연수 진행('26. 2분기)

* '20년, '23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지재권 행정절차 분석, 개선 모델 제시, 실행계획 수립, 초청 연수 등의 정보화 컨설팅 사업 수행